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관세 시행 전 3월 미 내구재 주문 급등
- WSJ: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증가
- Bloomberg: 파월 의장, 트럼프 압력 속 '균형 유지' 시도

#### [미국 금융]

- YahooFinance: 월가 강세론자, 트럼프 관세 여파로 올해 S&P 500 전망 하향

#### [무역전쟁]

- NYT: 12개 주, 트럼프 관세 정책에 집단 소송 제기
- Bloomberg: 중국, 미국의 일방적 관세 철회 요구... 협상 진행 사실은 부인
- Bloomberg: 시진핑, 미-유럽 갈등 속 유럽과 데탕트 추진
- Bloomberg: 미 정부, 자동차 산업 관세 완화 검토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PepsiCo, 관세 변동성 문제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 Bloomberg: 아메리칸 항공, 수요 약화 우려로 연간 전망 철회
- Bloomberg: 우버, 폭스바겐과 협력해 내년 자율주행 밴 배치 예정
- CNNBusiness: 맥도날드, 4년 만에 첫 고정 메뉴 추가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WSJ: Durable Goods Orders Jumped Ahead of Tariff Blitz

##### 관세 시행 전 3월 미 내구재 주문 급등

- 3월 미국의 내구재 수요가 급증했다. 이는 4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서둘러 주문을 넣었기 때문이다.
- 오늘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비행기, 전자제품 등 3년 이상 사용되는 이른바 내구재 전체 주문은 2월(0.9% 증가) 대비 9.2%나 증가했다. 이로써 내구재 주문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 다만, 운송 장비를 제외한 신규 주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운송 장비 부문 주문은 무려 27% 급증했다.

WSJ 기사

##### WSJ: U.S. Jobless Claims Rise Slightly

#####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폭 증가

- 오늘(목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주에는 21만 6천 건이었다.
- 한편,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은 184만 명으로 감소했다.
- 실업수당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으며, 이는 해고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WSJ 기사

## **Bloomberg: Powell Attempts Balancing Act as Trump Tests Fed's Autonomy**

**파월 의장, 트럼프 압력 속 '균형 유지' 시도**

-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등 연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공화당도 연준에 대한 감독 권한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압력에 대해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려 애쓰는 한편, 다른 영역에서는 일부 양보하는 이른바 '균형 잡힌' 입장을 시도하고 있다.
- 실제로 그는 과거에도 기후 이슈 관련 글로벌 협약 탈퇴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연준 웹사이트 문구의 삭제 등 논란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Bloomberg 기사

## **[미국 금융]**

### **YahooFinance: One of Wall Street's biggest bulls slashes view as tariffs bite**

**월가 강세론자, 트럼프 관세 여파로 올해 S&P 500 전망 하향**

- 증시 강세론자인 도이체방크의 선임 글로벌 전략가 반킴 차다는 올해 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6,150포인트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지수보다 약 14% 높은 수준이다.
- 차다는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인해 S&P 500의 목표치를 낮춘 11번째 증시 전략가다.
- 그는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수요가 줄며, 중국과의 교역 축소가 경제 활동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하향 조정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YahooFinance 기사

## **[무역전쟁]**

**NYT: 12 States Sue Trump Over His Tariffs****12개 주, 트럼프 관세 정책에 집단 소송 제기**

- 주로 민주당이 우세한 12개 주 정부는 어제(수요일), “대통령에게는 자의적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 이들은 관세를 제정할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며, 트럼프의 불법적인 관세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 또한, 이들은 트럼프의 국가 무역 정책이 합법적인 권한에 기반한 건전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덕(whims)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NYT 기사

**Bloomberg: China Says US Should Revoke Unilateral Tariffs, Denies Talks****중국, 미국의 일방적 관세 철회 요구... 협상 진행 사실은 부인**

-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관세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 중국 측은 미국이 협상에 나서기 전에 먼저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미국의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 중국 상무장관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회견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와 자국 내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중국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인 관세를 철저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Xi Seeks Detente With Europe as Trump's Tariffs Alienate Bloc****시진핑, 미-유럽 갈등 속 유럽과 데탕트 추진**

- 트럼프가 유럽연합(EU)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유럽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며 중국을 유럽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 중국은 자국의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한 유럽연합 정치인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유럽연합 역시 중국산 전기차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가격 할당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양측 모두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Officials Mull Easing Tariffs Targeting the Auto Industry**

## 미 정부, 자동차 산업 관세 완화 검토

-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수익 감소와 일자리 타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초점을 맞춰 일부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예를 들어, 이미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서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즉 이중 과세를 제거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 또한, 미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 중 미국산이 아닌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북미 3국 간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PepsiCo Cuts Growth Forecast, Citing Tariff Volatility PepsiCo, 관세 변동성 문제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 펩시코는 2025년 1분기 매출이 1.8% 감소한 17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77억 6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 그러나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소비자 지출 감소로 연간 수익 증가 전망을 철회했다.
- 라몬 라구아르타 최고경영자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과 공급망 비용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 여러 지역 시장에서 소비 동향이 약세를 보이며 전망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WSJ 기사

#### Bloomberg: American Air Pulls Full-Year Outlook on Softer Demand Worry

##### 아메리칸 항공, 수요 약화 우려로 연간 전망 철회

- 아메리칸 항공이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2025년 연간 수익 전망을 철회했다.
- 이에 따르면, 국내 레저 여행 수요는 약세를 보이지만, 해외 및 비즈니스 여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 그러나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적 우려, 정부 일자리 감축, 국경 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및 해외 여행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다.
- 한편, 1분기 조정 주당 손실은 59센트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69센트보다 양호했다.
- 2분기 조정 수익은 주당 50센트에서 1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 96센트를 크게 밑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ber, Volkswagen Partner to Deploy Autonomous ID Buzz Vans Next Year

### 우버, 폭스바겐과 협력해 내년 자율주행 밴 배치 예정

- 우버와 폭스바겐은 내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전기 ID 버즈 밴을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 올해 말부터 도로 테스트를 시작하며, 초기 테스트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다.
- 이 파트너십은 향후 10년간 미국 내 주요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우버는 웨이모, 아브라이드 등 12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사와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해 승차 공유 및 배송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 폭스바겐은 인텔의 모빌아이와 자사MOIA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ID 버즈 밴에 적용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CNNBusiness: McDonald's is adding its first new permanent addition to its menu in four years

### 맥도날드, 4년 만에 첫 고정 메뉴 추가

- 맥도날드는 4년 만에 신제품 '맥크리스피 스트립(McCrispy Strips)'을 정식 메뉴로 추가하여 5월 5일부터 판매한다.
- 이 제품은 바삭한 황금빛 튀김옷을 입힌 흰살 치킨 텐더로, 2020년 팬데믹 기간 메뉴 간소화로 사라졌던 치킨 스트립이 돌아온 것이다.
- 맥크리스피 스트립은 3~4조각으로 제공되며, 새로운 크림 치즈 딥과 바비큐, 스파이시 버팔로, 란치 소스와 함께 나온다.
- 맥도날드는 팬들의 요청을 반영해 이 제품을 재출시했으며, 이는 동일한 치킨 텐더를 활용한 스낵 랩의 부활 가능성을 시사한다.
- 최근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이탈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맥도날드는 이번 신메뉴로 매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 [보고서]

## 미국 국채 '안전자산 왕좌' 흔들?...외국 수요 여전

### 이달 미 국채 경매서 외국인 투자 비중 큰 변화 없어 헤지펀드 거물 그리핀은 "미 국채 브랜드 손상"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온 미국 국채 시장이 최근 출렁였지만 국채 경매에서 외국인들의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셀 아메리카' 우려가 커졌던 이달 9~10일 진행됐던 10년물·30년물 미 국채 경매와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